

대출만기 1년 연장 '가뭇에 단비'

"승리하는 민주당 위해 압도적 지지" 호소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16개 기업·143억 규모 이자 유예 혜택 받아

군산지역 조선업 협력업체들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만기 1년 연장된다. 군산 관내 16개 기업이 혜택을 받으며, 전체 143억원 규모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군산)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가 군산지역 조선업 관련 협력업체들에게 지원해 만기가 도래한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에 대한 상환연장 및 이자유예를 지난 7월 27일부

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라 이미 시행한 만기연장 이후 또 다시 추가로 상환을 연장함에 따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산에 소재한 주식회사 신산테크를 포함한 16개 기업이 총 143억원의 상환연장 및 이자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가운데 희망기업에 대해 대출만기 1년 추가 상환연장을 실시하며 유예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할상환도 적극 지원해 협력업체 중 집중관리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대출금의 25%이상 상환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원금감면 기간도 연장해 폐업 등으로 원금감면 대상이 될 경우 감면 금액을 원리금의 50%로 일괄 적용하고 분할 상환기간도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기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군산지역 조선업 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찾을 것"이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기동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당 위원장 경선나선 김운덕, 투표 적극참여 당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경선에 나선 김운덕 현 도당위원장이 2일 "힘있는 민주당! 승리하는 전북도당을 만들기 위해,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ARS투표와 대의원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투표참여와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김운덕 도당위원장은 "2일과 3일 이틀간 ARS를 통해 진행되는 권리당원 투표율은, 새롭고 힘차게 시작하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밑거름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 지방선거에

서 민주당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200만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9만 권리당원들이 높은 투표율로 화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또 "오는 4일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에는 700여명의 대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한 뒤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당, 화합과 소통의 전북도당을 만들기 위해 대의원들이 지혜를 모아주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도당위원장 경선은 지역현안과 정당문화의 해답을 찾는 또 한번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전북정치권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더 개혁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당원들의 명명한 선택과 압도적인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전주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운덕 위원장은 제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후보 민주당 경선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을 맡는 등 중앙정치권에서도 돋보이는 활약을 했다. 시민행동 21 공동대표를 지낸 시민운동가 출신의 개혁인사로 제8대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경 제8회 상진흥원장, 전주시배구협회장을 지냈다. 또한 현재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으로 2023세계스카우트잰버리 공동 준비위원장 겸 추진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기무사 개혁방안 발표 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시령부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5차 국군기무시령부 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개혁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당, 일본 자민당 간사장 접견

김병준 비대위원장 "경제 살린 노하우 알려달라" 요청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은 2일 일본 자민당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과 접견했다. 김 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등과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 일행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만나 양국과 한국당-자민당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또 동북아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동맹이 중요하

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젊은 의원들간 소통창구를 열어 교류를 이어가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일본이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를 되살린 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모두발언에서 "이제 총리 부임 이후 일본이 사회경제적 구조조정,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서 일본 경제가 부흥하고 있다"며 "아

베 총리의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자민당의 정치 개혁들이 일본 경제 부흥을 이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 오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산고 끝에 옥동을 낳는다'는 비유를 들며 한국당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비대위를 꾸렸고 그 결과물로 김 위원장을 모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민당 의원들은 자민당이 선거에서 진 뒤 어려웠던 당의 시절이 있었다며 '다시 일어섰다'는 당 구성원들 의지가 중요하다고 '국민의 가까이에서 목소리 듣는데 주력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與, 김경수 압수수색 "지나친 언론플레이"

허익범 특검팀에 악의적 여론몰이·마녀사냥 등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2일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집무실 및 관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성실한 수사보다는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과의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예고 없이 언론에 흘리는 식의 행태는 그야말로 구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기 전에 '소환 압박'이라는 등의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흠집내기 식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면서 "특히 지난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마치 새롭게 밝혀낸 것처럼 반복해서 공개하며 '드루킹과의 공범'을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인 여론몰이며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도 허익범 특검팀이 공식적인 직접수

사도 시작하기 전에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언론에 흘리며 망신을 준 탓에 서민의 벗이자 훌륭한 정치인 한 분을 홀연히 떠나보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허익범 특검팀이 지금 김경수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의 오락가락한 진술에 기대지 말고 오직 증거에 따른 원칙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하길 기대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이미 한나라당(2006년) 시절부터 당 차원에서 매 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올드보이 귀환, 정치는 후진"

유성엽 의원, 흑평 이어 새인물 필요성 강조

유성엽(사진) 의원이 2일 각 당 지도부에 '올드보이'들이 귀환하는 현상에 대해, 평화당은 천재 일우의 기회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후보가 앞서고,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후보

가 거론된다고 한다"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대 초반으로 '후진'한 것만 같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올드보이'에 같이 '올드보이'로 맞서면, 그 나물에 그 밥일 뿐 아니라 1% 정당에 계속 머물게 된다"라고 혹평하면서, "남들이 다 과거를 향해 가는 지



금이야 말로, 평화당이 변화의 새 바람·새인물을 통해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차별화하고 존재감을 확보할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유 의원은 현재 치러지고 있는 민주당평화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새간판, 새인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